

8/16/26

설교 제목: 이방인에게도 열린 하나님 나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5 장 21-39 절

가나안 여자의 믿음(막 7:24-30)

- 21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 22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 23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 25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 26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 27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 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다

- 29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 30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
- 31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천 명을 먹이시다(막 8:1-10)

- 32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 33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 35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 36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 37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 38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던라
- 39 예수께서 무리를 흠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긴장이 고조되자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리를 떠나 이방 지역으로 가십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갈릴리 전도 사역을 끝내고 베레아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헤롯의 관할권 밖에 있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약 50-6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21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바알 신을 숭배하고 권력과 부를 추구함으로 해서 구약에서 여러 번 책망을 받았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로 나아와 “주 다윗의 자손이여”이라고 부르며 귀신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22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23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자가 시끄럽게 하니 어떤 조치를 취해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처럼 이 여인을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돌려 보내길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이방 여인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 여인으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긴 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둘러댄 것이 아니고 진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만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경배하며, 다시 한 번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오직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5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던대로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여인에게는 씻길 수 없는 굴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인은 유대인들에 대비하여 자신들이 선택받지 못한 족속이요 권리를 갖지 못한 개들임을 인정하는 겸손을 보입니다.

26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메시야가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의 일부는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독점된 것이 아니라 적으나마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짐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검증이 끝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 주십니다.

이 여인은 백부장에 이어 두 번째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소원대로 그녀의 딸을 고쳐 주신 후,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 갈릴리 호수로 가십니다.

마가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두로를 떠나 시돈을 거쳐 갈릴리 남동 쪽에 위치한 데가볼리를 통과해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막 7:31)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악한 헤롯 안티프스의 관할 지역을 피해 이방 땅을 돌아다니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29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30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

31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 9: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 9: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께서서는 사역이 사흘 쯤 지속되자 지친 무리들이 혹시 길에서 기진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십니다.

32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33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35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36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37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38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오천 명을 충분히 배불리 먹이고 그 조각이 열 두 바구니에 가득하였던 역사를 행하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여전히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라도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떡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 무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자 여자와 어린이들을 제외하고 사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일곱 광주리에 가득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당신이 이방 여인에게 한 말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는 부스러기 곧 한정된 축복 밖에는 돌아갈 것이 없다고 생각할까봐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리를 집에 돌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가단으로 가십니다.

39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마가단이 어디인지 불명확하지만 아마도 게네사렛 평야의 남단에 있었던 성읍이 아니었나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셔서 한 가나안 여인의 소원인 귀신들린 딸을 치유해 주신 후 바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가신 목적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한 이방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그 여인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고자 악의 도시 두로와 시돈을 손수 찾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픔을 치유해 주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여인의 진솔한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셨습니다.

일부러 유도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드디어 여인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자, 놀라운 믿음이라며 칭찬하시고 여인의 소원대로 귀신들린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한 여인의 아픔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손수 찾아 가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시켜 주시려 손수 우리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을 경우, 고난과 시련을 통해 당신이 메시아심을 확신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면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몸소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정성껏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 주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격하는 모든 이들로부터 참 메시아라는 고백과 함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